

‘전북 출신’ 안규백 국방부장관 · 정동영 통일부장관 취임

安 “신뢰 받는 군대” · 丁 “평화의 문 열 것”

<안규백>

<정동영>

안 장관,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주재 본격 업무 돌입
정 장관, 판문점 찾아 남북 연락채널 현장 점검 나서

전북 고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25일 제51대 국방부장관으로 공식 취임했다.

전북 순창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 같은 날, 제44대 통일부장관에 취임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국민 신뢰 받는 군대 만들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지난 25일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며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특히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 통제 원칙을 강조하며 “군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군, 국민을 지켜주는 강한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이 과거 비상계엄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병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 첨단 전력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안규백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오랜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방정책 전반에 정통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64년 만에 임명된 문민 출신 국방부장관으로, 그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국방 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 글로벌 국방협력 확대, 방산 강국 실현, 군 정신전력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국민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강한 군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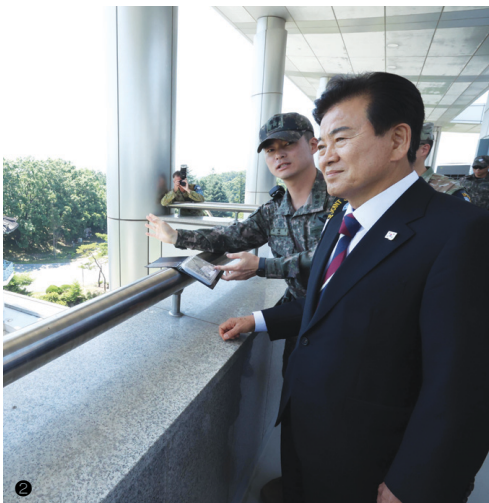
▲정동영 통일부장관 “분단의 벽 허물고, 평화의 문 열겠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경기도 파주 판문점을 찾아,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의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는 단절과 긴장이 아닌 대화와 협



①안규백 신임 국방부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②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②같은 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경기 파주시 판문점을 찾아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유엔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의집·평화의집 시설 등을 방문하고 장기간 단절된 남북 연락채널 현지 상황을 점검했다.

력의 공간으로 판문점을 복원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 장관은 현장에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다시 트기 위해서는 연락채널 복원이 급선무”라며, “앞으로 유엔사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하에 판문점 공간을 단절과 긴장의 장소가 아니라 연결과 협력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전북 전주에서만 내리 5선을 지낸 큰 정치인으로, 그 누구보다 전북 민심과 지역의 뜻을 국정에 반영해 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문제에 깊이 천착해 온 그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통일부장관(2004~2005)을 역임

하며 ‘평화의 집다리’를 놓는 데 앞장선 바 있다.

전북 도민들은 그가 다시 통일부 수장으로 돌아와 윤석열 정부에서 끊긴 남북의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켜 나갈 책임자로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국회의원들
헌정대상 수상받아

민주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제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 의원은 최근 바쁜 와중에서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천준호 의원과 함께 프랑스에 특사단으로 파견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친서를 프랑스 외교수석에게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정재계 인사들과 두루 만나 한-프랑스 관계 발전에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5년 연속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사법·입법감시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2024년 5월~2025년 5월)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참여 등 12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윤 의원은 총점 88.65점을 받아 전국 의원 중 공동 3위, 전북 지역 의원 중 최고점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업 분야 의정활동을 제시하고, 160여 건의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최근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시키며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만호 기자

“전북, 수소 특화단지 최적지”

김이재 도의원, 건의안 발의



도는 수소 모빌리티 전주 기 산업기반과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와 산업 생태계를 바탕으로, 전북자치도의 수소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지난 2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장임순 지역위원회의 남원시가 당정간담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 남장임순지역위·남원시, 당정간담회… 현안 논의

지난 25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장임순 지역위원회의와 남원시가 대선 공약사업,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공도사업 등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경식 남원시장, 박희승 국회의원, 김영대 남원시의회의장, 이정린, 임종명 전북도의원, 남원시의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시 주요 간부공무원 등 총 35명이 참석했다.

남원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2중 앙경찰학교 설립 △국립의화전문대학원 설립 등 제21대 대선 지역공약 반영 사업의 국정과제 최종 반영 △남원경찰수련원 신축 △첨단 드론레이싱 경기(DFL) 운영시스템 구축 등 국가 예산 지원 건의 △KTX 남원역세권 투

자선도지구 선정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반계획 반영 등 주요 공도사업에 대해 박희승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블루존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전북관 남원유치 등 도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시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희승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박희승 국회의원은 “남원의 발전을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도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전북도 차원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전략 등 제시

지난 2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전북자치도 차원의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를 낮추고 지역화폐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를 열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1)은 완주군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완주전주통합’ 추진을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올림픽 유치 지원, 새민금 국가산단 RE100 추진, 피지컬 AI 산업 기반, 대광법 통과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등 전북이 새로운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이 아닌 대안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전용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진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기능과 종합지원 기능의 이민·외국인 정책 종합지원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지난 7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정비·조정해 효율적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천명한 바와 같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은미 의원



윤수봉 의원



전용태 의원



한정수 의원



임승식 의원



김동구 의원



김슬지 의원



박정규 의원

임승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1)은 한우산업의 위기와 구조적 불균형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도축비 지원, 경매차액 보전 등 실질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도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유입 인센티브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축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급냉시설 확충, 전처리 인프라 보완 등 시설 현대화와 함께, 도내 축산물 도매시장 개장을 통해 유통 구조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도매인 조합 설립, 등급별 인센티브, 운송 기사 유입 촉진 등 유통 인프라 강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2)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전북 해양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내 균형발전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균형발전 영향평가’와 ‘균형발전 인 지예산제’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실)은 전북자치도가 대규모 가족피해가 한창 발생하던 시점인 지난 15일 뒤늦게 예비비 20억원 가량(도비 50%, 시·군비 50%)을 뒤늦게 편성한 것과 관련해 “전혀합리적 소원과 의양간 고치는 격이다”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기후위기 재난상황 맞춤형 폭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위 활동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2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환경훼손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대책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활동, 피해 해결방안 촉구 건의 등 앞으로 특위의 주요 활동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동 계획안을 확정했다.

영영선 위원장은 “이번 활동계획 제

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